



MOVING FORWARD TOGETHER

빛을 주는 제후의 빛은 육안으로 보이는 빛을 넘어서 희망, 사랑, 행복을 뜻합니다.

이웃을 내 몸 같이.

시각장애인의 재활복지

“용골 시각장애인 바리스타 일자리 사업”



지역아동 방과후 영어교육
“Fun Fun 영어교실”

저소득층 아동들을 위한 체계적인 영어교육 제공



실명예방 및 안보건 증진사업
“Eye Camp”

국제실명구호기구와 함께 우즈베키스탄 소외지역 안질환 환자들의 실명 예방 및 안보건 증진

다문화가정 및 중도입국 청소년
“문화 및 교육지원”

중도입국청소년을 위한 한국어 교육 및 한국사회 적응지원



안면기형 어린이를 위한 의료봉사
“Smile For Children”

국내비영리의료법인과 함께 미얀마 소외지역 안면기형 어린이들을 위한 무료 수술지원



입양대기아동
“Be The Parents”

입시보호소 및 위탁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입양대기아동 성장지원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한
“의료 및 교육지원”

인도네시아 파푸아 팜농장 지역사회발전과 지역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의료, 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

제호 격월호 「빛을 주는 실로암」
 발행일 2017년 5월 25일 통권 131호 이사장 김선태 발행인 김미경 편집인 함요한, 김은애
 편집위원단 이인애 김경애 진태욱 김다혜 오지수 이선례 이선아
 발행처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주소 08757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717 (은천동 931-7)
 TEL 02.880.0500 FAX 02.887.1120 E-mail silwel@chol.com Homepage http://www.silwel.or.kr
 트위터 https://twitter.com/silwel2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silwel2 해피로그 http://happylog.naver.com/silwel.do
 Telnet bbs.silwel.or.kr Web BBS http://web.silwel.or.kr ARS 02.880.0900 문의 홍보팀 02.880.0867
 디자인 인쇄 우리미술 02.2275.6960

미소를 짓고 싶다면 지금 웃어 주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가 피고 가슴에 설레일 때,

지금 당신의 미소를 주십시오.

지금 하십시오 中

찰스 스펠전

Contents



04 **포커스1**
 몽골 시각장애인 바리스타 일자리 사업



06 **포커스2**
 포스코대우의 특별한 봉사이야기

08 **새소식**
 스누젤렌, 중증 시각중복장애 성인들의 쉼 곳

10 **사랑나눔1**
 웃음이 아름다운 그녀, 정막녀가 실로암에 뒀다!
 - 포장조립 정막녀 봉사자

12 **사랑나눔2**
 '자세히 봐주세요, 우리 아이들을'
 - שליבן 학습지원센터 아동수학교실 박은희 강사



14 **해피스토리**
 2017년 3월~4월 사업 현장

18 **미리보기**
 2017년 6월~7월 행사 및 광고

19 **나눔플러스**
 2017년 3월~4월 후원 안내



몽골 시각장애인
바리스타
일자리 사업

- 개발도상국 장애인 대상 직업재활사업 펼쳐
- 한국국제협력단 KOICA의 지원을 받아 운영

시각장애인은 안마사만 할 수 있다는 통념이 사회 전반에 퍼져있을 때,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는 시각장애인 바리스타를 양성하였고 시각장애인 바리스타가 운영하는 카페 '카페모아'를 개소했습니다. '카페모아'는 일반 커피 프랜차이즈와 당당히 경쟁하여 현재 서울시 내에 5개 지점을 활발하게 운영 중인데요. 국내 시각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의 성공적인 케이스인 카페모아는 이제 개발도상국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 실로암 국제장애인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몽골시각장애인연합회(MNFB)와 협력하여 몽골 시각장애인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바리스타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한국국제협력단 KOICA의 지원을 받아, 카페모아를 모델로 삼아 운영하는데요. 4월 10일부터 21일까지 국내 카페모아에 근무하는 함보미 매니저와 한정희 전문 바리스타를 몽골로 파견하여 현지 교육생 7명에게 바리스타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4월 17일(월)엔 바리스타 훈련 입학식을 개최하였으며,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김선태 이사장과 최동익 사무총장, 김미경 관장, 몽골시각장애인연합회 게렐 회장이 내빈으로 참석했습니다.

또한, 바리스타 직업훈련실을 구축, 카페 사업의 기틀을 마련할 예정이며, 이후 2018년엔 이들이 일할 수 있는 카페를 개소하여 실질적인 직업재활을 꾀하고자 합니다.

바리스타 교육
파견 강사



바리스타 훈련교사 한정희

한국 바리스타 훈련 1기 수료생
카페모아 바리스타 훈련강사
2010년도 장애인바리스타대회 은상 수상

몽골에서는 장애에 대한 인식 자체가 많이 낮았고, 특히 시각장애인을 선별하는 기준 자체도 모호해서 지속적인 지원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현지 바리스타 훈련생들은 열정적이었고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고 싶다는 의지가 강했는데요.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다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훈련생 중 위생상태가 좋지 않은 분이 계셔서 현지 관계자와의 평가회 때 그것을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 몽골의 이동식 집인 게르에 사는 훈련생이었던 거죠. 게르에는 제대로 갖춰진 목욕시설이 없어 그럴 수밖에 없던 것이었는데요. 몽골과 우리의 환경이 다르다는 걸 그때 새삼 느끼는 계기였습니다.

매니저 함보미

카페모아 책임매니저
시각장애인카페 운영전문가
카페모아 경력 4년

몽골 현지의 복지 상황이 너무 열악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생 분들의 열정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교육을 진행할 때마다 열심히 따라와 주셔서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어요.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았다는 점이었는데요. 통역사가 있었지만 훈련교사로서 훈련생들의 성격이나 성향 파악도 필요한데,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서 그런 점이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워낙 열심히 훈련에 임해주셔서 처음과 마지막의 실력 차이가 엄청났어요. 현재 몽골에서는 바리스타라는 직업 자체도 아직은 생소하고 시각장애인 바리스타는 처음 도입되는 직업인데요. 몽골 바리스타 사업이 잘 정착되어서 몽골 내 장애인들의 직업재활이 더욱 발전해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는 전세계 모든 장애인들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 국제장애인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실로암안과병원과 함께 필리핀 개안수술사업을 시작으로 2015년 6월 국제장애인지원센터를 개소한 후, 국제장애인지원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국내 시각장애인들의 복지와 자립을 위해 애써 온 경험을 바탕으로 도움이 절실한 개발도상국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직업재활사업, 의료지원사업, 장애인이동권지원사업, 교육지원사업, 정보화지원사업, 점자교과서제작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의 : 국제장애인지원센터 (02-880-0870~6)

시각장애 아동 위한
촉각명화와 촉각교재를
내 손으로 만들어요



포스코대우의 특별한 봉사이야기

포스코대우
임직원 600여 명이
함께해

기업의 사회공헌은
다양한 의미, 이익,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어렵고 상투적인 말을 모두 빼버리고
사람이 하는 일이란 것에 초점을 맞춰보면,
바쁜 업무 가운데 직원들에게 부여된 재미있는(?) 일
혹은 각자의 업무 외에 다른 세상을
들러볼 수 있는 계기가 아닐까 싶다.
실로암은 여러 기업들이 자원봉사자 혹은
후원자로 함께하지만, 이번 자원봉사활동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
포스코대우 봉사활동 현장을 취재해본다.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과 포스코대우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특별한 자원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바로 시각장애 아동을 위한 특수교육 교재 및 촉각명화를 제작하는 활동이었는데요. 지난 4월 10일부터 14일까지 인천 송도사옥에서 포스코대우 임직원 600여 명이 활동에 참여해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촉각명화 대형작품 1점과 촉각한글점자교본 100권이 제작되었습니다.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의 촉각교재제작팀은 2016년부터 시각장애학생들의 미술교과 학습을 위해 만져서 감상할 수 있는 촉각명화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번 활동을 통해 제작된 촉각명화는 19세기 신인상주의 화가인 쇠라의 '그랑드 자트섬의 일요일 오후' 원작을 실제 크기로 하여, 다양한 소재를 사용하여 점묘기법을 수작업으로 완성하였습니다. 촉각한글점자교본은 시각장애아동이 한글점자를 수월하게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습교재입니다.

이처럼 수많은 분들이 하나의 마음으로 함께해주셨기에, 이와 같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완성된 촉각명화 대형작품은 오는 5월 15일부터 포스코대우 본사 1층 로비에 전시될 예정이고, 촉각한글점자교재는 전국 시각장애특수학교 15곳에 전권 배포하였습니다.

기업 봉사활동 문의는 [홍보팀\(02-880-0866\)](tel:02-880-0866)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포스코대우 김영상 사장님은 “그동안 접해보지 못한 특별한 봉사활동을 진행할 수 있어서 좋았다”며, “직원들이 직접 손으로 촉각명화도 만들고 한글촉각도서도 제작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남겨주시기도 했는데요. 포스코대우는 촉각명화 ‘그랑드 자트섬의 일요일 오후’를 첫 작품으로, 향후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으로 시각장애 학생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포스코대우의 착한 봉사활동을 응원합니다.

스누젤렌 Snoezelen

중증 시각중복장애 성인들의 실 곳



누구나 쉴 곳이 필요하다. 공부부터 인간관계까지 사람들은 늘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쉴 곳을 찾고 있다. 중증 장애인은 어떨까? 보이지 않고 생각을 표현하기 어렵고 많은 자극을 한 번에 처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더욱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에 심리·정서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설리번학습지원센터의 새로운 프로그램 '스누젤렌'에 대해 알아본다.

시각중복장애 성인의 잔존 감각을 깨우기 위해 현재는 물기둥, 광섬유 커튼, 진동교구, 빈백, 아로마 등 촉각, 후각, 청각 등 다양한 감각을 자극할 수 있는 교구를 배치해 놓은 상태인데요. 앞으로도 여러 교구를 배치하여 감각을 깨우고 심리적 효과를 도모 할 것입니다.

시각중복장애 성인들은 아동, 청소년에 비해 더 많은 스트레스와 정신적 압박을 갖는다고 하는데요. 비장애인 청년들처럼 소속이 없어지면서 지속적인 활동이나 관계의 폭이 좁아지기 때문이죠. 혼자 움직이거나 원하는 것을 요구할 수 없기에 스트레스는 더 커지게 됩니다. 이러한 심리적인 문제는 타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더 나아가 사회적 자립을 하는 데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심리재활프로그램은 아주 중요합니다.

시각중복장애 성인들은 남는 시간이나 정해진 프로그램 시간에 스누젤렌을 잘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폭 자고, 쉬면서 시간을 보낸다고 하는데요. 시각중복장애 성인들이 유일하게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스누젤렌이 앞으로도 더욱 많아지길 바랍니다.

설리번학습지원센터는 헬렌켈러를 지도했던 앤 설리번 선생의 이름을 따서 설립한 전문교육센터입니다. 시각장애 뿐 아니라 청각, 발달, 지체 등 다른 장애를 동반한 중복장애인을 대상으로 적합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시각중복장애인은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장애 특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그 중 중증 시각중복장애 성인은 사회적으로 자립이 필요한 대상으로, 설리번학습지원센터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동물매개놀이교실, 운동발달교실, 음악치료교실, 작업치료교실을 운영해왔는데요. 올해, 처음으로 심리재활교실(스누젤렌)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스누젤렌은 '꾸벅꾸벅'졸다, 혹은 '선잠을 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중증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적절한 여가시간이나 편히 쉴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기 위해 1970년대에 처음 고안되었습니다. 정신적·신체적 조건에 의해 실외로 나가지 못하거나 어려운 사람들은 다양한 감각을 경험하고 안정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한데요. 설리번학습지원센터에서는 스누젤렌 프로그램을 통해 더욱 체계적인 심리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시각중복장애성인들의 사회적 재활을 돕고 있습니다.



문의 : 가족지원센터 (02-880-0601~5)

2017 실로암복지관 사람들의 희망 인터뷰

웃음이 아름다운 그녀, 정막녀가 실로암에 뒀다!



정막녀
포장조립 자원봉사자

만나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지고 기운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60세가 넘는 나이에도 20대 청춘의 해맑음과 씩씩함을 가진 정막녀 봉사자도 그렇다.
그녀가 있기에,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포장조립 작업장은 늘 웃음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정막녀 봉사자의 행복한 봉사 이야기를 들어본다.

포장조립사업

기내 음악 청취용 헤드폰 포장작업을 통해 일반고용이 어려운 중증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어떻게 봉사활동을 하게 되신 건가요?

아주 우연한 기회였어요. (주)서울메트로환경(봉천역)에서 일하고 있는데, 직장 상사분이 봉사활동을 해보는 거 어떠냐고 제안을 해주셨죠. 워낙 활동하는 걸 좋아해서, 곧바로 알아보고 시작했어요.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이 봉천역 바로 앞에 있어서 오가며 알고는 있었어요. 오래전부터 장애인 선교에 대한 꿈이 있었는데, 실로암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면서 '아, 여기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성격이 한번 시작하면 성실하고 착실하게 해요. 2015년 3월 9일 월요일부터 시작했으니까, 지금 2년 이상 하는 거야. 내일이면 500시간을 채우게 돼서 참 뿌듯해요.

포장조립이라는 활동이 단순하지만, 오랫동안 하면 지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어떠신가요?

전혀 안 지루해요. 서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하니까, 시간이 금방 가요. 한 주에 하루를 쉬는데, 저는 쉰다 하면 여기로 와서 8시간 넘게 있어요. 일단 들어오면서 '정막녀 왔습니다' 크게 인사하면, 다들 어서 오시라고 환영해주고 좋아해 주세요. 보진 못하셔도 목소리 들으면 다 아니까, 지금은 한 식구 같아요.

직장생활과 봉사활동을 병행하시는 게 힘들진 않으세요?

오히려 봉사활동을 같이하니까 삶에 활력이 생기고 에너지가 넘쳐요. 제가 60이 넘었는데도, 이렇게 거뜰하잖아요. 남편이나 직장동료들은 걱정을 많이 해요. 나이도 있고 일도 하는데, 무슨 봉사까지 하느냐고, 그리고 힘들 때는 여기서 일하시는 시각장애인들을 보고, 앞이 안 보이는 데도 이렇게 하시는데, 내가 힘들어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을 고쳐먹어요.

앞으로의 계획이나 꿈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일단 저는 뭐든 목표를 먼저 설정해요. 지금 봉사활동의 목표는 1,000시간 채우기. 나 자신에게 한 약속은 꼭 지키기 때문에 좀 피곤하거나 남편이 만류해도 '내가 정한 약속이기 때문에 가야 한다'라는 마음으로 해요. 그리고 65세가 되면 정년퇴직을 해야 하거든요. 그때는 활동보조인을 할 거예요. 장애인을 돕기 위해서 이미 활동보조인 자격 수료까지 끝내놨어요. 지금은 기타를 배우고 있거든요? 좀 더 실력이 쌓이면 남편 이랑 같이 암 병동에 가서 환자들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줄 거예요. 미용기술 배우는 것도 꿈이에요. 미용기술 배워서 장애인이나 노인분들 머리 예쁘게 해드릴 거예요. 아직 젊다고 생각하거든요(웃음). 그냥 앞으로도 계속 장애인분들을 끝까지 섬기고 싶은 게 꿈이에요.

마음이 청춘이면 청춘이라고 하지 않은가?

아직도 젊어서 할 일이 많고 배울 게 많다고 하는 그녀의 열정에서 파릇파릇한 청춘의 얼굴을 본 듯하다.
누구보다 아름답게 삶을 가꾸어가는 정막녀씨를 응원한다.

2017 실로암복지관 사람들의 희망 인터뷰

자세히 봐주세요, 우리 아이들을



박은희
설리번학습지원센터 아동수학교실 강사

설리번이 설리번을 만나다

지금까지 20년 넘게 학습지도를 해왔어요. 학교 방과후교실이나 지역아동센터에서 해왔는데, 학교에서 만나는 아이들은 대부분 학습부진아들이었고, 그 중 대다수는 경계선 지능 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경계선이긴 하지만 장애를 가진 아이들과 만나고 학습 지도를 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장애아동에게까지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 우연히 실로암복지회의 아동 수학강사 모집 공지를 보게 되었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되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쌓아온 교수 노하우가 얼마나 효과적일지, 아이들이 어떻게 변화되어갈지 너무 궁금했어요.



'모든 학생은 제대로 배워야 할 권리가 있다'

저는 '모든 학생은 제대로 배워야 할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어느 분이 하신 말씀이었는데, 오래도록 가슴에 남더라고요. 아이들을 독촉하고 꾸중하는 건 알고 보면 교육자의 욕심 때문이에요. 그 수준이 아닌 아이한테 자신의 수준을 기대하니 서로 힘이 드는 거죠. 저도 처음엔 그런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아이들과 오랫동안 지내다보니,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보람찼던 기억

가장 기억에 남는 아이는 당시 5세였고 선택적 함묵증(발성 및 발음기관이나 기능에 장애가 없음에도 특정한 상황이나 사람 앞에서 말하지 않는 아동기 불안 장애의 일종)을 가진 아이였어요. 부모님은 계속 데리고 오셨고 저도 계속 가르쳤어요, 대답을 하든 안 하든. 그렇게 계속 말을 안 하다가 어느 순간 말문이 트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 배웠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토해냈어요. 그때 알았죠. 아이들이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흡수하고 있구나.



나만의 노하우

먼저 아이들을 자세히 관찰해요. 그럼 아이들이 무엇을 모르는지 어려워하는지 나오거든요. 그 다음엔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요. 또 학생들마다 다르게 접근해요. 물론 학교에서는 학생수가 너무 많아서 그게 불가능하지만, 저희는 한 교실에 1~2명 정도이다 보니, 가능한 것 같아요. 한 명, 한 명, 유심히 관심을 갖고 다가가면 아이들의 잠재력이 보여요. 무엇보다 절대로 지루하게 가르치지 않아요. 수학과 관련된 영상이나 노래로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게 하면서 수업을 진행하죠.



선생님의 비밀교실

저희 교실에서는 수준별 학습을 지향해요. 모든 아이들이 자신의 수준에 맞춰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데 한 초등학생이 시각이랑 지적장애를 동반한 중복장애아동이었어요. 기존 수업시간에 어떻게든 함께 해보려고 했는데, 쉽지 않았어요. 일대일 수업이 절실했고, 고민하다 무상으로 따로 그 친구만을 위한 교실수업을 개설했어요. 대부분 교구 위주예요. 만지고 느끼게 해주고 집중력이 생겼을 때, 재빨리 학습에 들어가죠. 그런 친구들은 갑자기 밀어붙이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틱 같은 증상이 나타나요. 그러면 그날 수업은 끝이죠 (웃음) 천천히 친구의 기분을 살피면서 수업을 진행하다보니 효과가 조금씩 나타났어요.

느리게 가도 좋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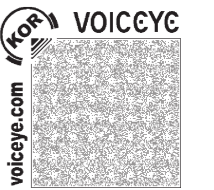
장애아동을 가르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빠르다고 좋은 건 아니구나. 급하게 해서 될 건 없구나.' 내가 주고 싶은 때가 아니라 학생 자신이 배우고 싶을 때, 사실 그 때가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는 시점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좋은 일을 한다고 하시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좋은 일'이 아니라, 제가 '해야 하는 일'이지요.

꿈은 이루어진다

학교 내에 경계선 장애 아동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은 비장애인이라 할 수도 장애인이라 할 수도 없고, 참 애매해요. 무엇보다 경계선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공간이 없어요. 저는 그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측에 제안을 해놨어요. 잘 풀리면 내년쯤 시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학습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이 참 많아요. 저는 그런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마음껏 배울 수 있게 돕고 싶어요. 저를 부르는 그 어디든요.

자세히 봐주세요, 우리 아이들을

우리 아이들을 자세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른들이 욕심이 아니라 아이들의 눈높이에서요. 또 장애인이 불안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사회가 더욱 나아지길 바랍니다. 장애인은 도움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으십니다.



복지관

감동과 어울림이 깃든
실로암 해피스토리



관현맹인전통예술단 공연 개최

사랑의 복지관 초청공연, 천안요양병원 문화나눔공연,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개관15주년 초청공연, 서울 남산국악당, 국립전주박물관, 국립재활원 장애인의 날 기념 공연 등 다양한 공연 활동을 통해 국악의 우수성과 장애인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1차 야외나들이_3.21,25
장소: 난타전용극장, 예술의 전당



실로암배움울타리 1분기 생일잔치_3.23



1차 고객모니터링단 회의 실시_3.28



재가시각장애인 1차 야외나들이_3.30
장소: 경기도 오산 물향기수목원, 화성 하피랜드



텐덤바이크 프로그램 진행_4.15,29



감동과 어울림이 깃든
실로암 해피스토리

학습지원 센터



팝송영어회화교실 문화수업_4.19



상반기 음악재활아카데미 서양음악교실 개강_3.6



제1차 씨네토크 ("그 시절 우리는 사랑을 노래했다"-영화 세시봉)_3.25



음악점역·교정사 양성교육_기관방문교육 (가천대학교)_3.29



제1차 북콘서트 ("김난주 일본 문학 번역가와 함께 하는" 북콘서트)_4.12



음악점역교정사 양성교육_상반기 음악점자교육 (시각, 비시각)_2.23~5.18



국어점역교정사 양성교육_상반기 국어점자교육 (시각, 비시각)_2.23~5.18

실로암학습지원센터는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사랑나눔바자회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는 지난 4월 20일(목), 봉천역 4번 출구 앞에서 2017년 상반기 '사랑나눔바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장애인의 날(4월 20일) 기념으로 개최한 이번 바자회 수익금은 지역사회 내 저소득 중증시각장애인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의류, 생활용품 및 문구류, 패션잡화, 식료품, 먹거리예다 프리마켓까지 합세하여 더욱 풍성한 바자회가 되었는데, 이 외에도 캐리커처, 음료할인 이벤트 등이 더해져 지역주민들의 발길을 붙잡았습니다.

한편 ADT캡스와 코웨이 임직원들은 직접 바자회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여 판매를 도왔습니다. 특히, ADT캡스에서는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위한 블랙박스를 복지관에 기증하여 나눔의 뜻을 더했는데, 관악소방서 전문의용소방대원도 봉사자로 참여하여 지역사회 행사의 취지를 더욱 살렸습니다.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의 김미경 관장님께서 "사랑나눔바자회를 몇 회째 진행하고 있지만, 오늘 바자회는 더욱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한 것 같다. 그만큼 나눔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있다는 증표일 것이다. 또한, 여러 기업이 후원에 동참하여 더 다양하고 좋은 제품을 판매할 수 있었다."라고 소감을 남기셨습니다.

또한, 이번 사랑나눔바자회는 세아상역, 영원무역, 아워홈, 나인, 자미온하우스, 운우, 몽드드, 예바주니, 굿센스, 스폰서기프트, 하나리빙, 트리플코리아, 핑크뫼, 지오마트 등 여러 기업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함께해주신 기업 및 단체, 자원봉사자분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각장애아동 저학년 체험학습 진행_4.1

가족지원센터에서는 따뜻한 봄을 맞아 저학년 체험학습을 진행하였으며, 오전에는 웅진 플레이도시에서 눈 설매를 타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오후에는 부천 자연생태공원을 방문하여 다양한 식물들을 만져보고 설명을 들으면서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각장애유아 발달지원사업 (수학놀이교실, 운동놀이교실)



시각장애아동 학습지원사업 (창의력과학교실, 영어책읽기교실)



설리번학습지원센터는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감동과 어울림이 깃든
실로암 해피스토리



시각장애아동, 청소년 음악교육지원사업 (피아노, 드럼, 판소리초급, 첼로심화, 플루트 심화, 트럼펫 심화, 클라리넷 심화)



설리번
학습지원
센터



지역사회점자교실 운영



해피맘엔키즈 (오감만족 책놀이, 부모독서교육)

국제 장애인 지원사업

감동과 어울림이 깃든
실로암 해피스토리



안마사 역량강화교육 (필리핀 세부)_3.13~24



취업박람회 참가_4.12

고용지원센터에서는 구직을 희망하는 시각장애인 구직자 및 직업훈련생이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취업역량을 평가하여 앞으로의 구직 계획 수립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취업박람회 참가를 지원하였습니다.



이동직업평가 (청주맹학교, 광주세광학교)



MOU 체결 (키르기스스탄, 미얀마, 라오스, 네팔)

국제장애인지원센터에서는 키르기스스탄, 미얀마, 라오스, 네팔 국가와 2017년 국제장애인지원사업을 위한 MOU를 체결하여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최종 평가 (스리랑카/리오스)_3.4/4.3



사업 최종 모니터링 (몽골)_3.19~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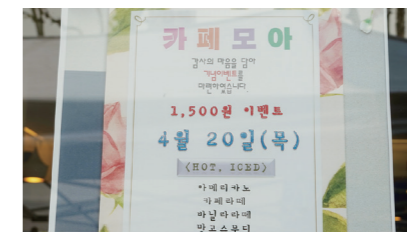


현지 시각장애인 복지 전문인력 한국초청연수 (필리핀 RBI 부이사장, 관장, 팀장)_3.20~24

실로암
직업
재활시설



장애인의 날 기념 할인 이벤트_4.20



장애인의 날 기념 할인 이벤트_4.20



안과병원점 4주년 기념 할인 이벤트

